

ETF 투자의 모든 것

체크박스	<input type="checkbox"/>
진행	완료
읽은날짜	@2025년 9월 4일
평점	별점 
1장르	주식
3작가	문일호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숫자	164

블로그링크



[독서감상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Hm5jRjsCt2nQ0qOS80PAIH-neLU6EP4a2JarEEEhgM/edit?tab=t.0> 배당주 편입할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어휘

- 분기: 3개월을 뜻함
- 대항마: 어떤 세력이나 인물에 맞써 경쟁하거나 견줄만한 대상. 맞서다. 대항하다.

▼ 적용하기

- 차트, 재무재표, 기업분석, 자산관리분배, 이런 분야를 완벽히 알 때 까진, 개별주식, 단타, 잘 모르는 ETF, 파생상품은 절대 하지 말자.
- 스스로 종목 고르는 법, 저평가 기업 찾는 법, 가치투자, 시장보는 눈 키우고 역량 만들자.
-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지키고, 잘 모르는 건 하지 말고, 잘 모를 수록 (알아도) 대세를 따라가자.
난 지금 초보다. 그것도 왕왕 왕초보.
- ETF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창업보다 부자될 확률이 높다.
서채은 ETF로 금융창업을 해보자.
- 배당주 편입할 때 반드시 시총, 거래량, 유동성, 배당률 확인하기 .
- 성장주, 기술주, 섹터, 테마, 리츠 등 **변동성 큰 거는 반드시 안정적인 것과 섞을 것**

◦ ex) **나스닥 100 + 금융주, 소비재, 배당주, 채권 등등**

- 산업재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설비를 뜻한다. 건설, 기계, 방산 기업처럼 제조업 기반 주식들이다.
-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FT면 굳이 비싼 ETF를 구매할 필요 없다. 주가 저렴하고, 수수료 낮은 ETF 선택해라 SPLG처럼.

▼ 책의 7% 엑기스

▼ 느낀점

-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다.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내 손절매 원칙 5% ~10%
- 채권공부 꼭 따로 하자. 개념 파악 후 소액으로 도전해보자. 미국단기채와 국내 단기채 .

▼ 핵심요약

- 분산투자, 장기투자, 지수투자 → 맘편한투자, 단순한투자 .
ETF 는 많은 위험자산인 상장기업을 묶어서 이들의 주가와 연동된다.
-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
- 금융상식이나 금융교육에서 '원금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돈이 녹고 있으니 냉장고로 옮겨야 한다.
냉장고는 위험 자산이다. **과거에는 위험 = 투기 = 사기**라는 개념이 통용되었지만, 이제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제도권으로 옮겨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만한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ETF는 주요 선택 수단**이 될 것이다. 여러 종목이나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ETF는 분명 투자자의 시간과 고통을 줄여준다.

□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다. 나 또한 은행적금이 원금보장이 되니까 가장 안전해 라며 그동안 투자에 대한 개념조차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창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두렵지만 그래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알아버린 만큼 재테크라는 걸 무시 할수도 없다. 뭣도 모르고 일단 주식을 시작했다. 책에서 시키는대로 하나하나 개념을 익히며 따라가고 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말자.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워런버핏의 명언, 그리고 실패한 분들의 경험도 책을 통해 배워가며 주식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익혀가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금융창업에 꼭 성공하고 싶다. 나도 월 100만원씩 배당주 받고, 자산증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자산을 불리는 동안 지혜도 함께 쌓인다.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절약하여 자산의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돈을 모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을 키우라는 것.

294

- 미국 단기국채는 사실상 달러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둘건히 유지하는 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필수자산이다. 295

- ETF는 리밸런싱 할때 배당성장이 떨어진 종목은 걸러내기 때문에 어떤 종목보다는 어떤 업종을 많이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9

▼ 주식 & ETF 세금, 용어

가성비 ETF, 총비용부담률 봐라 56

- 총수익률은 주가 상승으로 얻는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55
- 가성비ETF는 총비용부담률을 봐라 _ ETF 비용을 따질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보수율이다. 56
보수율은 기타비용이 빠진채로 공시되므로
총비용부담률은 = 운용보수 + 기타비용 + 매매증개수수료까지 합쳐야 한다.
ETF 체크와 같은 사이트에서.
- 보수율 낮고 실부담 비용률 높은 구조는 모든 국내ETF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투자자들에게 착시를 주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105

시총,거래량, 주가수익률

- **시가총액과 순자산은 1,000억이 넘어야 한다.**
 - 시가총액 = 주식수 * 현재주가
 - 시가총액은 실시간 가치다.
- 최근 5년간 주가 수익률 볼 것.
 - 미국 주식의 경우 S&P500과의 수익률 비교가 중요하다. 배당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SCHD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61

유동성

- 유동성이 작은 ETF는 호가 차이가 벌어진다. 유동성 공급자들도 이를 알고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걸어놓는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통상 1,000억원이 넘어야 하고, 거래량도 하루 1억원 넘는 상품**이어야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87

세금

-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펀드 공시에 들어가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를 클릭한다. 57
 - 펀드 유형을 **주식형으로 선택**하고 → 기준일자는 '**최신일**'로 선택 → 국내 투자자들에게 유명한 주요주식형 ETF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상장 ETF 는 ETF 닷컴 or ETF 체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미국 주식 할 때 15% 페이징 세금 떼이고 들어온 분배금, 연금자산에 수령시점에 도한번 세금을 떼는 이중과세. 이거 피하려면 국내상장된 미국지수 ETF를 ISA,IRP,연금계좌에서 매매해

라. 69

- 직투_ 250만원 초과하는 매도 금액에 대해 22% 양도세가 부과된다. 직투 계좌로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절세계좌 내 미국 지수 추종 ETF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70

AUM 59

+ AUM 설명

- ETF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알려주는 지표
- 인기 떨어지는 ETF 매수시 **유동성 문제 체크해라. 거래량 중요**
ETF에서 유동성이란 매수와 매도가 활발해 두 호가 차이가 크지 않은것.
=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 없는걸로 골라라.**
- 자기가 원할때 팔지 못하면 리스크다 _ 이중비용이 된다. 58
 - 수천만원 대 자산을 특정 ETF에 넣는 투자자 기준으로는 **시가총액과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은 넘어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104

CAGR 63

- 특정숫자가 복리 효과로 매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엑셀로 손쉽게 계산 가능
- 시작배당금과 최근 배당금 수치를 입력한 후, 기간을 연수로 입력하면 된다.

챗 GPT 도움받기

LP 74

- 거래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ETF에 **유동성 공급자가** 따라 붙는다.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이다.
- **세이브로:**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에 많이 투자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mt.즐겨찾기 해놓음
특정 기간에 많이 매수, 매도한 종목들을 게시한다. 75

커버드콜 자세한 설명 138

- 횡보장: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일정구간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 = 박스권
- 횡보장, 하락장: 커버드 콜 유리하다. 주가가 안오르니 대신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보완
상승장: 커브드콜 불리, 상승 이익이 옵션 매도 때문에 제한됨

etc

- 현재가 → 종목상세 → ETF 현재가격이 나오고,
거래량, 최근 1년 최고가. 최저가, 시가총액 등이 나온다.
- 구성종목을 클릭하면 이 ETF가 담고 있는 개별 주식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73
- 성장주 = 기술주
성장주로 대표되는 기술주가 주춤할때는 고배당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 **S&P500과 나스닥100**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비중이 높지만, 나스닥100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술 유량주 위주로 구성된다.
- S&P500은 IT업종 비중이 높아 금융월배 함께 투자해도 종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 ELN: 주가연계사채 _ 은행에서 판매, 채권형 _ 특정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되어 수익을 제공하는 금유유 상품을 의미한다.
ELS: 증권사 상품 _ 증권형
- 백테스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전략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백테스트라고 한다. 287
- 프리미엄 인컴: ETF가 고배당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 291

▼ ETC

- 매 시간 주가에 신경을 쓸 수 없다. 개별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ETF에 투자한다면, 매매와 상관없이 원금은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매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 개별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다는 의미지, 원금을 보존해 준다는 말이 아니므로 공부하고 리밸런싱해서 잊지 말 것.
- **분산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가만히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치는 녹아 흘러내린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름 → 내돈 가치 하락. 땅에 묻은 돈과 같음.
- 어떤 투자든 장기로 하면 든든하다.
-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바로 **ETF로 안전하게 투자하자.** 7
- **가능한 많은 기업에 투자해 투자 위험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투자의 핵심이다. ETF의 중요성 24
- 변동성이 큰 주식들 = 롤러코스터 탄다.
- 트럼프대통령 관세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주가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30
-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개별종목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시장 리스크만 남겨놓는다. 35
- 제태크 수단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단순한 분산투자를** 선택한다면 제태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음악, 미술, 학문등 여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여유롭게 투자하고도 심지어 개별주 투자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36

- **펀드:**

전문가가 투자해주는 간접투자 상품, 실시간 거래 불가. 자금 묶인다.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한 요소. **ETF:**

펀드와 유사하면서 실시간 거래 가능, 펀드보다 투명. 펀드매니저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못믿겠다면 속편하게 ETF 투자. 변동성이 낮고, 거래 편하고 수수료가 싸다

44

- 소액 투자자들은 무조건 싼 ETF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드는 ETF로 지금부터 모아가면 된다. 86
- 비슷한 ETF끼리 수익률과 같은 성과를 비교하고 싶으면 펀ETF 앱을 통해 상대비교 시스템을 활용해보자.
 - **ETF상품비교란** → 5대 ETF를 추가해서 보면 → 기간수익률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 한번에 5개까지 비교 분석 가능
 -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
- TR: 햇지 _ 환율 적용 / TR (X) : 환헷지 _ 환용 적용X

▼ 워렌버핏

- 워렌버핏의 최고의 제테크 교본은 신문이었다. 그의 책상에는 컴퓨터가 없다. 신문과 책으로 세상을 본다.
- 워렌버핏 투자비법 : **투자기간과 돈을 잃지 않는 것 19**
- 워렌버핏 유언: 자산의 90%는 S&P500 인덱스펀드에 넣고, 나머지 10%는 미국단기채권에 넣어라.
이런 투자는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가? 21

□ 채권공부 꼭 따로 하자. 개념 파악 후 소액으로 도전해보자. 미국단기채와 국내 단기채

- 모든것이 잘 풀리고 있다면, 이 시기는 증시가 오를때다. 이럴때는 안 좋은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서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 34
- 단기채권으로 꾸준히 이자를 챙기면서 하락장을 버틴다. 100
- 버핏은 10년을 갖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말했다. 100

▼ 배당주 ETF 체크할 점 & 주의할 점

ETF 투자 시 체크해야 할 핵심용어

배당수익률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 계산 배당률 / 주가	우량주라면 배당률이 1~3%
배당성장률	연평균 복기로 인상되는 비율	5년 연평균복합성장률로 미래 수익률 산출

배당성향	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	성향 자체보다는 추세를 중시
배당기준일	주주명단 작성 시기	기준일 2영업일 이전에 매수해야 배당받음
배당락일	배당받을 권리 사라지는 날	종장기 투자자는 배당주 저가 매수일로 활용
총수익률	주가수익률 + 배당수익률	월 현금흐름이 중요할 경우 배당률 중시
총비용부담률	ETF 투자자의 실제 비용부담	보수율만 보지 말고 총비용률 따져 투자
순자산 AUM	비용 제외한 ETF 순가치	1,000억 원은 넘어야 유동성 리스크 없음

✓ 배당주 매수 할 때 반드시 체크할 항목들

- 지금 당장 배당수익률이 높은 ETF가 있는가 하면, 향후 배당수익률이 좋아질 ETF도 있기 마련이다.
이 중간쯤 위치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8
- 배당률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 최근 1년 배당수익률과 1주당 배당금 (1년 기준)
 - 배당성장률 → 이 두 가지 꼭 확인 62

▼ < 배당주 주의 > ❌

-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배당 ETF 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ETF는 실력이 없는데도 면접만 잘 봐서 유능한 인재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런 ETF에 투자했다가는 고배당률 착시에 속아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떨어지는데 배당률을 높여서 더 주는 회사 [49~50]
배당률만 봄으로는 안된다.
- 반드시 **시총, 거래량, 유동성** 확인하고 확신 없는 ETF, 주변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보고 고배당, 배당ETF 매수하자. 나만의 원칙 철저히 지키고 **만장일치로 좋다고 하는 ETF에 안전하게 투자**하자. _ S&P500, plus고배당주 같은 ETF
 - ETF의 기본 구성요소인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투자하다보니 배당금 지급에만 몰두할 수 없다. 배당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히려 우량 기업인데 주가 상승 이상으로 배당을 높게 지급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한번은 그 기업에 대해 의심해봐야 한다.
 - 수익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은 건 회사가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안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투자자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는 몸값 대비 성과가 뛰어난 주식이나 ETF를 매수한 후에 그 상품의 주가와 배당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업계의 경쟁 상황이나 외부 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해 **배당은 향후 3~5년에 걸쳐 종장기 정책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51
 - 배당정책은 일단 한번 발표하면 그대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식을 배당성장주라고 한다.
배당성장주를 끓어서 배당성장형ETF 라고 한다.
- 미국은 10년이상 배당금을 인상해온 배당성장주가 수두룩하다. 미국은 자체 시장이 크고, 기술력이 뛰어나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배당성장을 가장 먼저 체크해라. 중장기투자를 위해 살펴봐야 하는 것이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이다.**
 - ETF등 ETF 주요사이트에 나와있다.
 - **연평균복합성장률 CAGR**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성장률은 특정시간 내 단순 증가율로 표시한다. 51~52
- 배당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 평가할 때 배당성향을 주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배당성향은 바로 배당에 대한 의지다. 53
- 노련한 투자는 배당락일을 이용한다. 53
 -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

배당락일 이용해서 ETF 매수

- 금융기업들은 배당금을 많이 준다. 주가의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워도 안전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은 떨어진다. 76
 - **나스닥 100은 이런 금융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때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주가 급락에 대비해야 한다.**



나스닥100 같은 성장 ETF와 금융 배당주 ETF를 섞어서 포트폴리오 안정화.

▼ 미국 ETF

- 미국 시장 자체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지수ETF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미국 2008년 금융위기?** <https://chatgpt.com/c/68c0dd48-136c-8331-9a86-fa106c38f644>
- 지난 30년간 S&P500은 약 8% 올랐다. 예금금리가 2% 인것을 감안하면 4배나 높다. 투자자계 기본 성적표가 연 8% 인데 국내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금융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는 내 자산이 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물사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기본 S&P500 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다. 95
- 미국 시장에서 우량기업의 상승흐름을 따라가고 싶으면 S&P500이 정답이다.
이 지수를 쫓아가는 3대 ETF SPY, VOO, SPLG.
이 세개의 ETF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려 있고 시가총액도 크다.

S&P500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 회사가 **우량기업**으로 평가한 **500곳**을 묶어 놓은 **지수**
= **우량기업 500곳에 분산투자** 23
-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것 (중국은 CSI300)
- 미국 기초지수를 따라가면서 국내에 상장된 ETF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대표 상품이자 서학개미들의 필수 매수 ETF. 89
- **미국지수 ETF는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해야 할 제테크의 기본이다** 84
개별종목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덜 할수 있지만 그 안정성이 주는 편안함은 비교할 수 없다. 버핏처럼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인물이 아닐 바에는 **지수 ETF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길**.
- S&P500을 국내 상장 버전으로 사면 세금을 아낄수 있다 89
- IT: 32.98 / 금융:13.95 / 경기소비재: 10.69 / 헬스케어: 9.72 / 통신: 9.5% / 기타: 23.17%
- S&P500을 기초지수로 하는 주요 ETF
 - **SPY, VOO, IIV, SPLG** <85page표>
 - 애네 넷은 전부 분기 배당이다. 3,6,9,12월

SPY

- S&P500을 쫓아가는 스파이는 슈드와 비교했을때 같은 기간 수익률은 86.3%.
- 스파이가 장타형 타자라면, 슈드는 단타형 선수다. 슈드는 홈런을 평평 터트리기보다는 **꾸준히 안타와 볼넷으로 1루에 나가는 선수와도 같은 기업들의 묶음**이다.
- SPY는 세계 최초 ETF다. 1993년도에 나왔고 30년 넘게 거래되며 완벽하게 검증된 ETF다.
- SPY 보유종목 _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 1.2위다.

VOO

- S&P500 지수 따라감
- SPY와 똑같은 콘셉트로 만든 ETF
- 차이점은 비용률 뿐이다. 실부담비용률은 SPY가 가장 높다.

SPLG

- 초보 소액 장기투자자 희망한다면 SPLG 94
- SPY가 만든 서민용 ETF.
현재로선 S&P500 관련 ETF 중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다. 96
- 가격도 저렴하고 보수율도 저렴, 배당수익률도 좋다. (분기배당) mt. 장투 95

SCHD_ (배)

- 슈드의 기초자산은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이다 _ Dow Jones Dividend 100
-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 고배당 기업 100곳을 끌어 구성.
- SCHD 안전하다. 미국 우량기업 100개가 동시에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 부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재무비율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
- 특정기업의 부채 부담으로 어려워지면 이 지수에서 뺀다.
- 우량한 기업들로 구성된 슈드의 최근 5년 주가수익률은 52.1%다.

QQQ

- proshares Ultrapro QQQ ETF = TQQQ
- proshares : 운용사 이름
- Ultrapro QQQ는 나스닥 100지수의 주가 움직임을 세 배로 반영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조차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가 TQQQ라는데 놀란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ETF다. 76



나스닥100 같은 성장 ETF와 금융 배당주 ETF를 섞어서 포트폴리오 안정화. (1)

- **나스닥**은 활발한 무역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비용이 불어나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77

▼ 미국 3대 가치주 106

-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VTV, SCHD(찰스 슈왑 미국배당주 ETF), DGRO(블랙록 배당성장 ETF)
 - **공통점:**
이들 ETF는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과 배당금을 인상해주는 배당성장주로 이루어져 있다.
- 성장주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보다 미래 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는 곳이 많다. 106

DGRO 108

-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보다는 배당성장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025년 연간 주당 배당금은 6.54달러. 연평균 복합성장률 기준으로 5.3%씩 증가.
- 물가상승률이 3%인 점을 감안하면 애브비와 같은 종목들이 대거 포함된 DGRO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전략이다.

- 애브비(AbbVie)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2013년 애브트(Abbott Laboratories)에서 분사해 독립
- **주요 사업:** 면역학, 종양학, 신경과학, 안과 치료제 개발·판매.
- 존슨앤존슨과 애브비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전통 가치주에 가깝다.

어떤 환경에서도 돈 버는 소비재 ETF 111

- 미국은 자본주의 소비도시고, 인터넷 대량구매한다. |
코스트코와 월마트 비중 높은 ETF 골라라 111
- 주가가 5년간 130% 상승했다.
- 미국 소비재에 투자하는 대표 ETF 112
 - XLP (원화: 110.000)
 - VDC (원화: 300.000) – 분기 배당주 117
 - VDC, P&G :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주요종목으로 포함한 ETF
 - 코스트코에 대한 설명 <113 하단부터 ~ 115>
 - 국내상장된 ETF는 **KODEX 미국 S&P500 필수소비재 ETF 113**

KODEX 미국 S&P500 필수소비재 ETF 119

- 2년밖에 안됐지만 VDC와 XLP가 20년 이상 만들어온 기반을 예측해볼때 KODEX 미국 S&P500필수소비재 ETF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를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당률도 2%대로 미국 필수 소비재들과 비슷하다. 118
- 배당일은 1,4,7,10 월
- 매달 배당을 받는 현금흐름 만들고 싶다면 VDC, XLP, ODEX 미국 S&P500필수소비재 ETF 모두 매수. 119

국별로 분산한 안전한 투자, 독일.이탈리아 ETE 120

-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비결은 복잡하지 않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등 4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모은다.
- 올웨더전략:
주식,채권,금,원자재 등 서로 다른 자산을 자신의 성향과 경기 국면에 맞게 분산투자.
올웨더 국가별 분산버전 ETF
- **EWG – 41.22\$**
독일지수 추종하면 산업재 비중은 22.5% 달한다.
배당률 1.86%,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0.55%
- **EWI** : 이탈리아 ETF – 51.37\$
배당률은 3.25%, 배당성장률은 5.5%

배당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매력적이다. 최근 5년 주가상승률도 이탈리아가 독일을 압도하고 있다.

- 산업재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설비를 뜻한다. 건설, 기계, 방산 기업처럼 제조업 기반 주식들이다.
- 독일 60종목, 이탈리아 38종목으로 각국의 대표 우량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ETF로 평생 현금흐름 만들려면.

- 운용사 입장에서는 선물옵션 투자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챙겨준다. 다만 **주가 상승기에는 이미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상승분 전체를 **ETF 수익으로 가져올수 없다.** (약점)
- **운용사의 기술이 들어간 ETF**는 주가보다는 배당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도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연 8%의 배당률은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2배 이상 되므로 **중위험 중수익 투자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있는 커버드콜 ETF는 JEPI, JEPQ, QYLD 등이 있으며 연 배당률은 대략 9~12% 다.

JEPI

- 제피의 순자산은 391억 달러로 규모가 큰 편이다. 실비용률은 0.35%로 투자자에게 중간 수준이다.
- 제피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JP 모건의 커버드콜 ETF다.
- 안정적인 월배당이 특징이지만, 주가 상승폭은 제한됨.
- S&P500 대형주 위주
- 53.86\$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위클리고정커버드콜 ETF는 국내판 제피다.

133

- **성장주 = 기술주**

성장주로 대표되는 기술주가 주춤할때는 고배당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제피를 따라하는 국내상장 동일 복제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 이 ETF는 기존에 있던 최상의 상품 2개를 섞어서 연 10%가 넘는 고배당을 추구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최대규모 배당 ETF인 PLUS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나는 커버드콜은 하지말자. 돈벌려는 욕심으로 주식하면 투기다. 그리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정석대로 따라가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지수투자하고, 파생상품 옵션, 선물, 원자재 ETF는 하지 말자.

JEPQ

- JP 모건의 커버드콜 ETF

- 나스닥100 기술주 위주기술주 중심이라 제피보다 변동성 크고, 배당률로 상대적으로 높음.
- 57.16\$

DIVO 135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5HawrxMCuVkhIrMAMIU0Cx5o1DfMcmPJ-sHmtEzMsg/edit?tab=t.0#heading=h.wtygcxvhse> DIVO 어떤 ETF ?

- _ SCHD, DGRO, DGRW
- 슈드는 3.6.9.12 분기배당이지만, 디보는 월배당 _ 세전 배당률 4.9% / 운용수수료 0.55%
- 대박과 분산은 함께 갈수없다는 것이 제테크의 기본원칙이지만 DIVO는 분산투자 원칙을 따르면서 고수익 고배당을 동시에 추구한다.
 - 최근 5년간 주가수익률 40%를 달성했다.
 - 44.42\$
- 디보 주식 최대 비중 업종은 금융이다. 금융은 배당을 많이 주고 꾸준히 이익 성장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런 이유로 DIVO는 S&P500 추종 ETF와 잘 맞는다.
- **S&P500은 IT업종 비중이 높아** 함께 투자해도 종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137
- 80% 배당성장주에 투자 + 20%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
 - 상승장에선 주가성장을, 하락장에서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전략
- DIVO를 따라한 국내상장 ETF 등장_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배당일: 매월중순)

DGRW 144

- 성장 + 배당을 동시에 노리는 ETF
- 마이크로소프트 등 성장주 비중이 23~24% ↔ SCHD는 IT비중이 10%
- IT 비중이 노아 주가 상승기에 유리하다.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변수는 빅테크 등 성장주가 대거 들어가 IT 차이다.
- SCHD는 필수소비재의 비중이 거의 20%로 필수소비재가 최대 업종이다. 필수소비재는 경기 상관없이 사람들이 꼭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묶음이다.
-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내릴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슈드의 성과가 DGRW를 앞지울 수 있다.
- 배당률은 SCHD보다 낮지만, 기술주 비중이 더 높아 **성장성 반영**
- 장기 안정 배당형(SCHD)과 성장 배당형(DGRW)의 중간 성격
- DGRW는 "고품질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 배당률은 보통이지만 성장성과 분산 효과가 더 큰 상품.

SCHD

- 장점: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 비용이 매우 낮아 장기 투자 효율적.
- 단점: 기술주 노출이 적고, 성장성은 제한적.
- 배당을 재투자해 은퇴 이후 월 현금흐름을 노린다면 여전히 SCHD는 DGRW보다 매력적이다.
은퇴이후 따박따박 월급식 배당이 필요하다면 SHCD.
- 일단 자산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고 배당이 후순위라면 DGRW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DGRW

- 장점: 배당도 쟁기면서 기술주 포함한 성장성도 반영.
- 단점: 총보수 높음. 배당률이 SCHD보다 낮음.

결론

- 안정적 배당 수익을 원한다면 → **SCHD**
- 배당과 동시에 성장성(특히 기술주 노출)을 더 원한다면 → **DGRW**
- 둘은 상호보완 관계라, **SCHD + DGRO 이미 보유 시엔 DGRW까지 추가하면 성격이 겹친다.**
대신 "SCHD 대신 DGRW"는 가능. (배당률 ↓, 성장성 ↑)

▼ 국내 ETF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배) 68

- 월배당형, 한국판 SCHD로 통한다.
- **S&P500, 나스닥100,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연금계좌 내 국내상장 미국 3대 대표지수로 통한다.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10 (475350) 99

- 버핏이 선택한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버크셔해서웨이,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셰브론, 무디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크래프트하인즈, 처브**가 10개의 기업이다.
 - 처브는 보험사다. 102
- 요즘 유행하는 월배당이니 고배당이니, 파생상품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주식시장과 미국 기업의 위대한 성장만 믿는다.**
- 이 ETF는 **배당금 지급이 없으므로 오로지 주가상승 (자본차익) 만 기대한다.**
- 이 종목은 **애플의 주가 향방이 중요하다.** 버크셔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애플이기 때문이다. 이 ETF 속에 애플이 상장되어 있다. 101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 반도체 전체 업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TIGRER 미국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 당장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사고 싶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구매를 늦춘다. 그보다보니 관련 반도체 기업 주가는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 하락하곤 한다. 72
-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 반도체 업종 기업 중 가장 몸집이 큰 회사이기 때문이다.
- 1위 엔비디아 12.4% / 2위 브로드컴 반도체 기업 10.48% / 3위 TSMC 대만의 넘버원 상장사**
-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설계도대로 만드는 기술력에서는 TSMC를 따라올 곳이 없다.
미국 ETF가 좋은 이유는 하나의 ETF에 미국기업도 들어있고, 대만 상장사도 들어 있어 자동적으로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73
- 미국직투 ETF vs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 걸로 할까요? 미국 걸로 할까요?

▼ 금 ETF

미국 ETF

GLD

- 정식이름: SPDR Gold Shares
-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는 ETF 브랜드.
- 장점: 실물 금을 매입해서 HSBC 은행에 보관한다. 가격과 실물이 1:1로 연동된다.

국내 ETF

ACE KRX 금현물

- GLD처럼 금현물을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 411060
- 지수가 달려기준이다.

▼ 채권 ETF

- 채권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증서다. 이 증서를 보유한 사람은 그 증서의 발행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이 발행하고 보증한다.
- 채권은 부자들의 전유물. 내 자산이 소액에 불과하다면 좋은 채권을 소개받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분산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채권 ETF를 어느 정도 담는 것은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 채권은 비싼대, 채권 ETF는 저렴하다.

- 채권은 경기침체가 와야 빛을 보는 자산이다.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간다.
-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준다. **채권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수 있는데, 만기가 없다. 주식처럼 리스크 있다.
- 채권 ETF는 개별 채권만큼의 원금 보장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기 ISA 계좌에 30%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 앞으로 미국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관심을 가져보자.
- 분산차원에서 1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 채권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 금리 인하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장기채는 수익 높지만, 리스크 크다.
- **변동성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채 ETF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장기채보다 수익률은 낮더라도,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주가 방어력이 뛰어나다.** 주식처럼 **실시간 사고 팔 수 있으니 유동성도 우수**하다. 278
- **변동성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채 ETF 투자해라.**
장기채보다 수익률은 낮더라도, 하락장에서는 주가 방어력이 뛰어나다.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으니 유동성도 좋다. 278
-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 ETF는 TLT 다.

채권 ETF

TLT 38

-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채권 ETF _ 운용사: 블랙록
- 정식명칭: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 20년 장기 국채 아이셰어즈 ETF
- 기초 자산이 채권일 뿐 주식의 변동성이 추가된 거다.
- TLT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장기채로 구성된 ETF다.
- **TLT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주가 상승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단기채는 변동성이 낮아 투자 이후 마음을 덜 졸일 수 있다.

SHY 280

- 만기 1~3년 단기채권 128곳에 투자한다.
- 블랙록이 2020년 7월 출시했다.

- 매월 달러로 배당을 지급하며, 보수율은 0.15%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280

- 미래에셋자산운용. 수수료 0.3 % _ 보수가 SHY보다 두배 높다.
 - 실제 비용 부담률은 0.3225% 로 더 높다
 - 배당률도 1.89%로 미국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 절세계좌를 통해 매수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절세효과만 고려하여** 국내ETF에 **투자하기에는 핵심 양대지표에서 미국 ETF에 크게 뒤쳐진다.**
- 주가 보다는 분배금(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실상 월배당을 지급하는 달러 예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281

ACE 미국나스닥100 채권혼합액티브 ETF (438100)

- 국내상장 미국 ETF로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가능하다.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100 지수와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3대7 비율로 분산투자하는 구조다.
- 미국 단기국채는 사실상 달러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둘건 히 유지하는 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필수자산이다. 295
- 단기국채는 나스닥 상장사 100곳의 주가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촉매제다 295
- **IRP에 30 % 안전자산 선택해야 하는데 ACE미국나스닥100 채권혼합액티브 ETF를 담아라.**
안전자산은 예금이나 채권등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포함한다. 296

▼ 파킹형 ETF

KODEX 머니마켓 액티브 ETF 127

- 국내 대표적 상품은 KODEX 머니마켓 액티브 ETF
- 일단 어디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파킹형 ETF
- 수시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은행은 수시입출금 통장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추구하기 위해 파킹형 ETF로 돈이 몰리고 있다.
- 2024년 8월 상장 이후 9개월만에 순자산이 6조원을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 이 ETF는 초단기채권, 기업어음 등 신용도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MMF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겸비한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 MMF는 운용자산 규모가 클수록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 실부담비용률 역시 0.06%로 저렴하다. 내돈을 잠시 주차하기에 안성맞춤의 금융상품이다.

▼ 한국 연금계좌로 미국 빅테크 투자

- 원화로 달러 자산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분산투자다. 국내 기업에서 받은 돈을 국내 상장사로 재투자하는 것은 원화 자산 그대로이기 때문에 되레 위험하다. 159
 - = 국내에서 번돈으로 국내 주식사면 원화에 집중되어
→ 한국 시장이 침체되면 자산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다. 달러 분산 효과가 없다.
 - 즉, 국내에서 번 돈으로 국내상장 해외 추종 ETF를 매수해라 → 절세계좌로 (이게 답이다)
- 코덱스미국빅테크10 (H), 타이거미국AI빅테크10, 에이스미국빅테크top7
- 이 세개의 ETF에 각종 파생상품 전략을 가미해 월배당으로 만든 상품이 쏟아졌다.
- 빅테크는 속성상 배당보다는 주가상승이 주목적이다.
- ISA에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사람은 성장주가 필요하다. 코덱스미국빅테크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 172
- [TIGER 미국 AI 빅테크10 vs KODEX 미국 AI 소프트웨어 TOP10 - Google Docs](#)

KODEX 미국빅테크 10(H)

한 주에 **57.000원**이라서 매수는 안했다. 나스닥 100 있으니까.
섹터는 코덱스 미국 소프트웨어10 이랑, 타이거 미국AI 10 만 매수했다.

넷플릭스

- 트럼프의 관세전쟁 리스크로 애플은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반면 넷플릭스는 관세와 무관하고 전 세계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글로벌 지위가 튼튼했다. 162
- 전 세계를 재패한 넷플릭스의 2024년 매출은 390억 달러였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는 무형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이다. 넷플릭스 주가의 상승원인이다.
- 넷플릭스는 성장주의 전형으로 보면 된다. 이런 넷플릭스를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KODEX 미국 빅테크10(H)**의 성과는 탁월할 수밖에 없다 _ 주가상승 기대 (165)
- 국내는 코덱스미국빅테크 상품에 넷플릭스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해외는 XLC, FDN, CARK가 넷플릭스를 의미있게 보유중이다. 넷플릭스의 성장성을 믿으면서 관련 업종에 분산투자하고자 한다면 이 ETF가 적합하다. 166
- 주가상승보다 안정적으니 주가 흐름을 원한다면 애플, MS, 아마존 위주의 ACE미국빅테크 TOP7 plus 나 TIGER 미국AI빅테크10이 더 마음편한 자산이 될 수 있다. 174

항상 저평가받는 메타, 무시해서는 안된다. 168

-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유럽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
- 메타는 EU의 규제로 인해 유럽 쪽의 실적이 2025년 9월부터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메타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SNS·광고 기업이지만 EU 규제와 정치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한 구조다. 장기적으로는 AI·메타버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투자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 메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 하나로, 원래 이름은 페이스북(Facebook) 이었다가 2021년에 메타(Meta Platforms)로 사명을 바꿨다.
- **메타가 하는 일**
 - **SNS 플랫폼:** Facebook, Instagram, WhatsApp 보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
 - **광고 사업:** 매출의 대부분이 기업·개인 광고에서 발생.
 - **VR·AR/메타버스:** Oculus(지금은 Meta Quest) 같은 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증강현실 시장에 투자.
 - **AI 인프라:**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광고 추천 AI 강화.

TIGER 미국AI빅테크10 vs KODEX 미국AI소프트웨어 TOP10 177

- 코덱스소프트웨어보다 범위 넓고 좀 더 안정적
- 둘다 섹터다. 장기보유 해도 되지만 리스크 잘 볼 것.

□ 코덱스 미국빅테크10(H) ETF 한 주가 57.000원이다. AI 나 소프트웨어도 빅테크처럼 주가가 오를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가상승기대?

자동차, 철강등 딱딱한 하드웨어는 높은 관세를 불일수 있지만 정기구독상품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관세 장난을 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읽고 공감이 되어 소량 매수했다. 두 ETF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성격이 틀리고 변동성 차이도 있어서 타이거:코덱스 = 7:3으로 보유해 보자.

구분	KODEX 미국 AI 소프트웨어 TOP10	TIGER 미국 AI 빅테크10
투자 범위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 SaaS 중심	빅테크 전반 (소프트웨어 + 반도체 + 클라우드 + 하드웨어)
대표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데이터독, 몽고DB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TSMC
특징	소프트웨어 업종 집중도 높음, 변동성 큼	분산도 높음, 안정성 상대적으로 큼
성장 잠재력	소프트웨어 상용화·서비스 확대 → 폭발적 수익 가능	대형 빅테크 안정 성장, AI 인프라·하드웨어 수혜
리스크	업종 집중으로 기술 변화·실적 충격에 민감	대형주 위주로 단기 충격은 완화됨
장기 투자 적합성	변동성 감수 가능하다면 고성장 베팅	장기 코어 자산으로 보유 안정적
투자자 적합성	고수익·고위험 선호자	안정적 성장·중위험 선호자

- Kodex 미국AI 소프트웨어 ETf는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상장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분기배당 ETF다. 배당률은 1%를 넘기기 어렵다. 이들은 배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한다. 수수료는 0.45%로 높은편이다. 실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비용통제가 중요하다.
- = 수수료 비싸고 배당적고 성장주다. 비슷한 새로운 경쟁 ETF 나올수도 있다. 183

▼ K조선 ETF 226

- 한국의미래, 선박에 달렸다. 이제 한국에는 조선밖에 안 남았다.
- 가격 비싸고 기술력이 들어가는 고부가치 선박은 한국이 최강이다. 중국과 끊임없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SOS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 조선업은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바다는 물론 하늘 위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업이 커버하는 범위가 넓다. 주식시장에서 조선업과 방산업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유럽에서의 전쟁과 중동발 국지전 등으로 방산주는 중장기투자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하는 업종으로 여겨진다.
-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국가 핵심 사업에 내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 **Tiger k 방산&우주, Tiger 조선 top10, soi조선 Top3**

TIGERK 방산&우주

-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023년 7월 출시한 ETF로 시총, 순자산총액이 천억을 넘어 유동성 문제는 없다. 언제든지 사고팔수 있다.
- 배당 매력은 없다. 분산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주가 상승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ETF다. 230
- **Tiger k 방산&우주가 Tiger 조선 top10보다 더 특정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ETF 내 비중 각각 10% 넘는다.
235
- 단점:
ETF내 HD라는 글자가 많이 보인다. 중복투자가 심하다. 분산투자 효과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HD그룹 주가가 흔들리면 ETF 역시 변동성 커진다. 240

Tiger 조선 top10

- 좀 더 조선에 집중된 ETF.
2024년 10월에 출시된 비교적 신상 ETF로 비용부담률이 0.39%로 저렴하다. 배당률은 1년 기준 0.27% ~ 1% 되지 않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방산주

팔란티어는 전통적인 섹터 ETF 분류에서는

- IT/소프트웨어에 속한다.

- 하지만 **매출 구조**가 국방·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아서 **방산 테마주**로도 분류된다.

변동성

- 기술주 특성과 방산 테마가 겹쳐 변동성이 크다.
- 이익이 꾸준히 쌓인 전통 방산기업(록히드마틴, 노스럽그루만 등)보다 주가 등락이 크다.
- 팔란티어는 **성장주 성격**이 강해 단기적으로 뉴스(정부 계약, 분기 실적, 전쟁 이슈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 잔동성(=변동성)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팔란티어는 **섹터=IT/소프트웨어, 테마=방산/국방**이고, 안정적인 방산주라기보다 **고위험·고 성장형 테마주**에 가깝다.

▼ ETF etc

-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비트코인 ETF : **IBIT** <40page>
- 글로벌 **비만치료제 ETF** 185
- **여행 ETF 191**
 - 고배당주 하나투어 _ 이익의 절반 돌려준다. 197
- **분산투자이자 고위험 원자재 ETF** 207
- **전력ETF 215**
 - 전력부족과 AI시대에 따른 폭발적 수요
- **K팝 ETF 244**
 - 관세피난처 K 팝 주식들 246
 - K팝 관련 ETF 종목 소개 249
- **중국 빅테크 간접투자 ETF** 253

▼ 꿀조합 ETF

SPLG + DIVO +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262

- 초기투자금 1억원 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추천 2중위험 중수익 최적의 조합이다. 266중위험 중수익 최적의 조합이 중위험 중수익 중위험 주
- 중위험, 중수익 최적의 조합

S&P500 + 200커버드콜 + 금현물ETF 269

-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박스권에서만 등락을 반복하는 구조는 커버드콜 전략이 적합하다. 프리미엄기초자산이 상승할 땐 콜옵션 매도 기초자산이 상승할 기초자

-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만 얻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은 포기.
- 한국처럼 10년 넘게 박스피를 형성해온 주식시장에서는 커버드콜이 최적의 환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 웬지모르게 웃픈 상황이다. 271N기초지수가 행사가격과 같은면 ATM
- 기초지수가 행사가격과 같으면 ATM
기초지수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OTM
- ACE KRX금현물 ETF. 273
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해주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다. 배당금은 없지만 금은 가져가자.
 - 배당률과 배당성장률 모두 제로다. 하지만 커버드콜이랑 같이 담아서 보완하는 구조로 만들어라
 - 미국이 달러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고 미국 채권이 쏟아지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보유고에 금을 추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적 약자 이므로 이들 중앙은행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은 그 회소가치가 전 세계의 어떤 토오하나 자산보다 높다.

S&P500 + SGOV 277

-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월 250만원
- SGOV: 미국 단채권이다.
- S&P500에 90% 투자하고, 나머지 10% 미국단기채권에 투자해라.
이런 자산조합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방법이다.
비싼 S&P500 (VOO) 매수하지 말고 ↔ 주가 저렴하고, 수수료 낮은 ETF_ SPLG 매수해라.
- 국내의 경우 절세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5년 기준으로 가장 성과 좋은 ETF 는 KODEX S&P500이다.
- SGOV _ 채권의 교과서 SGOV 282
 - S&P500에 비해 이 ETF는 매월 현금흐름을 위한 투자다. 기본 투자금으로 5,000만원 을 설정하고 매월 50만원씩 SGOV를 매수한다. 연간 배당률은 4.71%다.

닥치고 SHCD와 QQQ로 은퇴하기 285

- ETF 자체가 분산투자지만 서로 다른 ETF를 조합하는 이유는 어떤 금융상품이든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상쇄하는 다른 EFT를 찾는다면 꿈의 조합이 탄생할 수 있다.
- SHCD는 배당성장에 중점
QQQ는 주가성장에 중점을 둔다.
- 하락장에서는 슈트가 주가 복어와 배당금 지급을 담당하고 , 상승장에서는 QQQ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조합이다. _ 전형적인 공격 + 수비수 조합이다.

- 이 두 ETF는 중복되는 업종이 거의 없다.
- 비율은 50:50으로 하는것이 가장 간편한 비율이다.
두 이ETF에 각각 5,000원 만원씩 설정하고 매월 50만원씩 추가로 투자한다. 287
- 한정형 8:2
- 하지만 안정형이고 은퇴가 가깝다면 슈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슈드의 배당금이 월급이 되기 때문이다. 286
-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슈드는 필요하다.

JEPI 와 JEPQ로 월 700만원 만들기 289

- 젊은 세대들이 선호할 만한 공격적인 배당률과 월배당, 그리고 S&P500 지수 추종이라는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운용사 JP모건

JEPI	JEPQ	GPIX
주식 + 채권 + 커버드콜	주식 + 커버드콜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 사용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위해 채권 성격의 신종금융상품 ELN을 결합	나스닥100 종목을 추종	S&P500 추종 + 커버드콜
우량주 중심	기술주 중심	

- 여기에 GPIX라는 ETF를 결합해서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292

배당커버드콜 + 채권혼합 + 금현물 ETF

- 노후를 위한 최강조합으로 월 300만원
- **IRP에 30 % 안전자산 선택해야 하는데 ACE미국나스탁100 채권혼합액티브 ETF를 담아라.**
 -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70%를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채권등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나스닥100채권혼합액티브를 매수해라. 채권이 70%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0%는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셈이다.
 - 책에선 안전자산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계좌에선 안전자산으로 안잡힐수도 있다.
- **ACE 미국나스닥100 채권혼합액티브 ETF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배당 상품과 함께 투자해야 한다.** 296
- 경제 위기때 마다 뜨는 금
- 원자재 투자는 실비용부담률이 높다. 297

SPDH + DGRW 302

- 변동성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조합 , 낮은 변동성, 낮은 비용 , 높은 배당
- SPHD는 S&P500을 추종하면서 높은 배당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ETF다.
S&P500 중에서 지난 1년간 배당률이 높은 주식 75개를 선정한다. 그 중 변동성이 적은 50여개 기업을 추린다.
- 실부담률도 0.03% 낮은편이다.
- DGRW는 IT 주식 위주의 배당성장이다.
- 두 ETF는 모두 월배당 상품으로 구준한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DGRW는 성장주 비중이 높아 주가 상승률이 뛰어나고 , SPHD는 배당과 함께 낮은 주가변동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304

XLF + SCHD 313

- XLF는 우량금융사 = 미국의 대표 금융주
- 이 ETF에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초과하며,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다.
- XLF는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당 가격도 10만원도 안 되어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하다. 314
- 슈드와 XLF의 조합은 노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보너스를 받는 기분을 느끼려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두 ETF 모두 연 비용부담률이 0.1% 이하로 장기투자 시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315

미국 필수소비재 ETF + 중국빅테크 + 한국 고배당 316

- 미국은 소비대국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계속될 것이라 가정하에 미국필수소비재 ETF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 **VDC**
 - 코스트코, 월마트, P&G, 코카콜라 등 미국인이 매일 찾는 필수소비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 기업들은 매우 안정적이서 배당금도 상당히 많이 지급하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다
 - 고배당주 중에는 투자하기에 위험한 종목들도 많다. VDC 구성 기업은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듬뿍 받는 기업이면서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한다.
 - 분기배당주로, 총비용부담률은 0.09%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 그다음으로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를 추가하면 최근 중국의 부상을 투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
 - 미국이 부진할때는 중국테크 기업에 기대를.

- 국내는 배당관련 ETF중 가장 인기가 높고 검증된 **PLUS고배당주 ETF**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 한국의 희망 PLUS고배당주
- 최근 2년간 평균 13.4% 씩 상승하며 국내 자산가들의 하든카드로 자리잡았다.
- 구성종목은 KB,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다.
- 앞으로 10년간도 계속 믿어보자. 319
- 이 세개의 핫한 ETF를 조합하며 글로벌 분산투자도 가능해 죄상의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다.